

전남도, 올해 관광객 1억명 유치 잔걸음

2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서
‘전남방문의 해 시즌2’ 페스티벌
해의 300만 등 명품 관광 붐업

전남도가 해의 300만명 등 올해 목표로 삼은 국내외 관광객 1억명 유치에 속도를 낸다. 전남도는 16일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내외 관광객 1억명 유치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형 행사 홍보를 위해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마한문화센터 유치 도전
신창동 유적서 희망 선포식

우리나라 대표 마한문화유산이자 국가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을 보유한 광주시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광주시는 16일 신창동 유적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 희망 선포식’을 개최했다. 신창동 유적은 1992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사된 문화유산으로 국내 최대 벼껍질 퇴적층, 가장 오래된 약기(현악기·찰음악기·북 등), 수레 부속구(바퀴살·차축), 농경구, 무기, 제사 도구, 환호 등이 발견된 마한의 대표적 도시유적이다. 광주시는 마한문화유산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통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신창동 유적을 비롯해 월계동 장고동 등 200여곳에 달하는 마한 유적이 있는 역사문화도시이고 고대 마한은 지금의 광주를 만든 씨앗이다”며 “가장 오래된 현악기는 광주의 예술로 태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수레바퀴는 첨단 자동차 산업도시로, 화살촉은 광주를 양공의 메카로 만들었다”고 광주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마한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마한역사문화권인 전남에 공동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마한이라는 역사 공동체이자 각자 독특한 문화를 지닌 특징이 있다”며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상생 협력의 길을 열고 마한이 꽃피웠던 공동 번영의 시대로 다시 나아가자”고 말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역사문화유산의 연구·홍보를 위한 기관으로, 현재 문화재청이 국비 2억원을 들여 건립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건립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초청인사, 출항 지역민, 서울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다. 또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축제, 고향사랑 기부제, 귀농·귀촌 정책 등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전남 관광사진전도 함께 진행한다. 첫날인 21일에는 1,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영국남자’와 함께하는 전남 방문의 해 홍보단 출정식과 에일리, AB6IX, 하

이 등 유명 가수의 케이팝(K-POP)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22일엔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104회 전국체육대회 등 4대 대형 행사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위해 지상파 프로그램 ‘6시 내고향’ 현장 특별 생방송도 진행된다. 전남도는 올해를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전남 방문의 해 성공 모델’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관광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반려가족 1,000만명 시대를 반영한 ‘펫 페스티벌’, 700만 캠핑인구를 위

한 ‘캠핑관광박람회’, MZ세대 ‘이디엠(EDM) 페스티벌’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는 2023년에는 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로 전남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겠다”며 “명품 숙소확충과 권역별 관광 명소 조성,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남을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민선 8기 1억명의 관광객과 300만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해 문화관광 융성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근간 기자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정기총회에서 제4회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선남 전남매일 사장, 김종석 대신협 회장 등 23개 회원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제4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

대신협, 2023 정기총회·시상식
위상 제고 회원사 공동 프로젝트

지역언론 최대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종석·이하 대신협)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와 제4회 자치분권 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대신협은 이날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 및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자치분권 대상을 시상했다. 대신협은 또 전남매일 업무부 설인선 자장 등

대신협 회원사 우수사원 29명에게 대신협의회상과 상금을 시상했다. 앞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김종석(강원도민일보 회장) 현 대신협 회장이 연임됐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신문방수권집인협회 이사,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 위원장, 대한석탄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신협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국내외 선진사례 기획 보도를 올해부터 4년간 연차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창립 20주년 맞아 대

신협 위상 제고와 영향력 강화를 위한 회원사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는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를 경기 수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김종석 회장을 비롯해 전남매일 김선남 사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남도민일보 구주도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광남일보 황정호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동양일보 조석준 사장,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 영남일보 이승의 사장, 전남일보 이재욱 사장 등 23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전남개발공사, ‘안전감사제’
16개 지방공기업 최초 도입

전남개발공사가 16개 시도 개발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16일 “도민 중심의 ESG경영 실천 등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부패요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안전감사제도는 기존 순찰(패트롤)식 안전점검과 일시적 안전조치에 한정된 관행적 현장 점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전문가와 감사담당자,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이뤄진다. 합동점검에선 안전부패요인과 향후 발생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발견해 지속 가능한 개선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고, 결과에 대한 추적관찰, 예방정책 시행을 통해 반영구적 안전조치를 보장한다. 안전감사 결과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한 사업장에는 경고·패널티를 부과해 자율적이면서도 예방적인 안전환경 조성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해빙기 재해취약시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감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은 물론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위험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근간 기자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찬반 격화

▶1면에서 계속

이와 달리 분리 반대 패널로 나선 김선명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연구기관을 다시 분리하지는 주장은 상호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소지역주의로 회귀하지는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별개로 요구되는 정책 연구는 연구원 내에 존재하는 특화센터에서 연구하고,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책 연구는 단일센터에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도 “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역할 부여에 대한 확실한 장치 마련이 우선 과제”라며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인력을 늘리고, 역시 전국 최하위인 재정 지원 규모도 키워야 한다”며 분리에 반대했다. 한편, 나주시지부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가 열린 전남도청 앞에서 연구원 재분리 추진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인구 감소,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러한 선적인 현안을 해쳐 나가는 데 광주전남연구원이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다”고 성토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384 병역법위반

피고인 김윤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3. 3. 9

판사 임영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3-58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1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가. 대상지역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	3,384.135㎡ (102만평)	

나. 제한사유

- 광주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지역인 광산구 오운동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 대상지 전체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추진에 저해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다.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사항 및 수목 식재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수목 식재 등

○ 단, 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허가할 수 있는 행위〉

1.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지의 시행일까지 허가받은 행위 및 등 고지의 시행일 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 허가가 가능한 행위
2.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3. 지반의 붕괴 그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제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5.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6. 조사·설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시설건축물의 설치 등 제한사유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7. 그 밖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목적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라. 개발행위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한차례 연장할 수 있음)

□ 주민의견청취

가. 열람 장소 및 의견청취 기간

1.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차세대산업과,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2.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3. 3. 17. ~ 3. 31. (14일간)
3. 관련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나. 의견 제출 방법 등

1.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도서 열람 후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차세대산업과(062-613-1211) 및 광산구 도시계획과(062-960-8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년 **근조화환 3년**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림 박배성 302-0316-649511

그린공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공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